

법무부 형정국 발행 월간 『새길』의 매체 전략 연구*

오 현 석**

차 례

- | | |
|-------------------------------|--------------------------------|
| 1. 월간 『새길』의 창간과 배경 | 3. 월간 『새길』의 속간호의 특성과
시대적 의미 |
| 2. 월간 『새길』 창간호의 특성과
시대적 의미 | 4. 나오며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1948년 4월 창간한 『새길』 창간호와 1953년 발간된 속간호를 중심으로 매체적 특성을 분석하고 잡지의 구성, 필진 등 변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매체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편집 의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새길』은 창간 당시부터 재소자를 위한 잡지로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재소자들의 불만과 이탈이 가중되어 가던 시기에 법무부 형정국은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으며 그 대안으로 매체 발간을 선택했다. 이에 재소자의 교화를 가장 큰 목적으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5B5A16082447).

** 부산대학교 조교수

로 『새길』이 창간하여 형무소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창간호 구성 역시 재소자의 눈높이에 맞게 한글, 한글-한자 혼용, 한자 사용 등 글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해방 정국에서 법무부 교정국이 지향한 행형의 초점은 이념 확립보다는 재소자 교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새길』 속간호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교도관의 희생이 컸고, 전국 형무소 시설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파손, 파괴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속간호의 목차와 필진의 구성, 글과 작품의 세부 내용은 재소자의 의식 개선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폐해진 형무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속간호의 필자는 전문 문사 대신에 대부분 행정국 직원, 지역 형무소 직원, 재소자로 구성이 되었다. 직원은 자신들의 지식 지향을 증명하기 좋은 수단이었으며, 재소자 역시 의식의 투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그러한 검열과 통제를 이탈하고자 하는 내적 욕망도 품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재소자, 『새길』, 창간호, 속간호, 매체 전략, 법무부, 행정국

1. 월간 『새길』의 창간과 배경

월간 『새길』은 서기 1947년 9월 30일 잡지 등록번호 128번으로 등록 후 창간호는 약 6개월이 지난 단기 4281년 4월 1일에 발행되었다.¹⁾ 창간호 간기에는 사법부 행정국이 발행처로 표시되어 있고, 초대 사법부 행정국장인 윤용섭이 발행인을 맡았고 주간은 심상룡, 인쇄인은 김팔봉으로 되어 있다. 발행소는 사단법인 치형협회, 인쇄소는 당시 김팔봉이 을

1) 『새길』 창간호는 간기에 잡지등록 일자는 서기로, 발간 일자는 단기로 표기하고 있다.

지로에서 운영했던 출판·인쇄사인 애지사¹⁾로 되어 있다. 이러한 간기 정보를 토대로 볼 때 『새길』은 해방 이후 사법부 행정국의 주도로 행정국 내 사단법인 치형협회²⁾에서 발행한 월간 잡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새길』은 1948년 창간하여 한국전쟁기 휴간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도 법무부 교정본부에서 발간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고 있는 잡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5년 봄호가 통권 469호에 이를 만큼 긴 역사를 지니고 꾸준히 발간되고 있는데 창간호부터의 역사를 고려해 보면 현재 약 75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창간 이후 월간 체제로 발행이 되다가 2001년 계간 변경하여 현재까지 전국 교도소에 배포되고 있는 매체이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방대한 분량의 잡지가 발간되었지만 『새길』은 그동안 일반인들이나 학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매체이다. 그 이유는 일반인들이 매체에 접근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발행, 배포된 매체이기 때문이다. 또한 『새길』은 처음부터 교도소³⁾라는 폐쇄적이고 한정된 공간에

2) 치형협회는 일제강점기인 1924년 당시 조선총독부 법무국 감옥과 내 조선치형협회가 설립된 것이 시초이다. 당시 협회 설립 목적은 “죄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교양과 사회지식을 전하는 잡지를 발간하고 감옥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었다.(「죄수를 위한다고 치형협회 새로 생겼다」, 『동아일보』, 1924.3.30.) 하지만 이는 조선의 행형을 구시대적 유물로 치부하고 조선총독부가 근대 발전된 행형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내적 목적이 담겨 있었다.(신선영, 「죄와 벌의 시각화: 일제강점기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을 중심으로」, 『한국학』45-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215-256쪽.) 해방 이후에도 이 조직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해방 정국의 사법부 행정국 내부에서 매체 및 도서 발간, 법무 행정 및 제도의 발전과 운영에 관여하였다. 또한 이 단체는 이외에 형정 관련 활동과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행정국 내 직원들의 유대를 도모하고 직원복지 등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었다. 현재는 교정공제회가 과거 치형협회의 일부 역할을 이어받아 운영되고 있다.

3) 이 논문에서는 교도소, 형무소, 감옥, 감옥소 등 거의 비슷한 성격을 지닌 용어이지만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더 적합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즉, 단어 자체가 지닌 의미는 큰 차이가 없으나 시대별로 지칭하던 용어의 차이에서 발

서 만들어지고 배포된 잡지였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매체에 접근이 쉽지 않고 특수 연구 분야이자 관련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매체였다. 제작부터 인쇄, 발행, 배포까지 모두 법무부 교정본부에 의해서 교도소 내 인쇄소에서 주로 인쇄하여 각 교도소로 배송 후 수행자⁴⁾들에게 배포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교도소 밖의 사회에서는 이 매체를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매체에 참여한 필자 중에 사회적 명망가나 전문 문사가 초기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학연구자 입장에서 매체적, 문학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다. 참고로 『새길』에 수록된 글의 대부분은 전문적으로 글을 다루는 필자가 아닌 전·현직 교도관, 법무부·교정국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주로 참여하였다.

그런데 전문 문사나 유명 작가의 글이나 작품이 없다는 이유로 매체를 외면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필자의 구성은 매체의 발간 목적, 방향성, 매체를 둘러싼 제반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식들이 원인이 되어 표면에 드러난 일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필자들의 글 역시 내용이나 형식이 매체의 지향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표면에 드러난 필자와 글의 내용, 이면에 숨겨진 필자 선정 이유와 글의 주제 등 잡지의 내외 모두를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길』은 법무부 교정국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매체이므로 국가의 행형(行刑) 정책이나 교도소 운영, 재소자 관리 등과 매체 필자, 글의 내용이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점들을 고려할 때 『새길』의 필자와 수록된 글의 특성은 당대 사회 상황과 법무부의 입장 등 여러 조건이 결

생하는 표현과 세밀한 의미 차이가 존재하므로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 당대 사용하던 용어를 중심에 두고 기술하고자 한다.

- 4) 수행자라는 용어 역시 본 논문에서는 재소자, 수감자 등의 용어로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달리 사용하고자 한다. 단 ‘범죄자, 죄수’의 경우는 어휘의 의미가 앞의 용어들과는 달리 명백히 범죄를 범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어들과 사용에 차이가 존재한다.

합한 복합적 산물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1950년대 재소자, 교도관 등 교정(矯正)과 관련된 구성원들을 위한 발간되었던 매체는 법무부 형정국에서 발행에 관여한 『새길』과 『형정』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매체는 서로 발간 목적과 예상 독자, 지향하는 바가 전혀 다르다. 『새길』은 재소자를 주요 독자로 설정한 잡지이며, 『형정』⁵⁾은 교도관을 독자로 설정해서 발행해 온 잡지이다. 그러므로 『새길』은 외부의 소식을 바로 접할 수 없는 재소자들에게 외부 사회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소자의 심리 정화나 교육 등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의 구성 역시 교도관이나 재소자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 외부 필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매체가 제작되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2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새길』과는 달리 『형정』은 재소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을 위해 만든 잡지였다. 당시 형정국 교도관의 임무 수행과 직업의식 형성 등 교도관 양성 제도 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이와 같은 매체로 채워나갔다. 말 그대로 『형정』은 법무부 형정국의 기관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매체는 교도관의 행형(行刑)에 대한 임무 수행 지침서 또는 안내서가 되기도 하고 교도관이 되고자 하는 예비 교도관들에게는 하나의 교재로서 역할도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형정』은 『새길』과는 달리 교도관의 지식습득과 가치관 형성이 핵심 발간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목적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형정』은 교도관과 함께 외부 전문 문사, 학자, 사상가 등이 필자로 발간 초기부터 개입하게 된다. 당시 지식인 계층이었던 교도관들의 사고 수준이나 흥미를 충족시키고 법무부의 행형 지침이나 정책을 신속하게 전파할 목적을 품고 있었다. 그러

5) 『형정』과 관련한 매체 특성 연구는 오현석,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교도관 형성을 위한 월간 『형정』의 매체 전략」, 『한국문학논총』 99, 한국문학회, 2025, 175-200 쪽 논문을 통해서 『형정』의 초기 발간된 매체를 중심으로 교도관 잡지로서의 특성과 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형정』은 『새길』의 속간보다 앞선 1952년 12월에 창간되었다.

므로 『형정』은 교도관, 직원이 필자로 참여한 『새길』의 초기 모습과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반적으로 옥중시, 옥중수기, 옥중소설, 옥중문학 등 용어로 쓰이는 감옥문학은 통상적으로 감옥 경험이 있는 존재들의 문학작품이나 수형자의 옥중 수기, 편지, 회상기 등을 의미한다. 특히 감옥문학의 주체인 “대내외적 억압 권력에 의해 강제로 배제되고, 주변화되어 간 사람들”⁶⁾로 표상되는 수형자가 “지배권력의 규율 체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행해지는 감금장치”⁷⁾인 감옥에서 경험한 체험한 경험이 감옥문학의 중요한 요소라 인식되었다. 즉, 사회적 환경에 따른 억압과 탄압을 당한 존재들이 토로하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표현하는 것, 그 고통을 이겨내고 현재의 저항과 자유를 만들어 낸 서사에 감옥문학의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감옥문학의 정의는 감옥이라는 공간을 둘러 싸고 있는 환경을 아우르지 못한다. 감옥을 하나의 판옵티콘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 폐쇄적 체계가 만들어지고 운영되어 온 주체와 객체의 의식이 온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근현대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군부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권력에 저항한 이들의 삶의 이야기가 가치 있고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이들을 억압하는 존재, 이들 주변을 둘러싼 요소들까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즉, 교도소에서 발간한 『새길』이나 『형정』과 같은 잡지를 고려할 때 감옥문학의 정의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 감옥이라는 체제를 둘러싸고 있는 주체인 법무부, 교정기관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교도관, 여러 이유로 감옥생활을 하는 수형자들, 이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까지 여러 층위의 목소리가 결합되어 묶여 있는 매체는 ‘감옥’이라는 장소를 다양한 의미로 표상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필자들의 목소리

6) 차민기, 「한국 근대 옥중시와 공간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375쪽.

7) 차민기, 위의 논문, 375-376쪽.

이면에 녹아있는 다양한 억압 기제, 방어 기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감옥문학 연구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매체들의 발간 경위와 발간 목적, 발간 체계와 출판, 편집의 상황, 필자 구성과 글의 주제 등 드러난 것과 드러나지 않은 것의 틈 사이에 은폐되거나 망각된 요소를 발견하는 것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이 두 잡지는 지향점이나 목적, 체계, 대상이 차이가 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감옥문학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주요한 매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이 매체에 대한 연구는 한국 감옥문학의 범주를 확장시키고 감옥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장면을 분석함으로써 주체와 객체의 관계는 물론 각각의 목소리에서 감옥문학의 특성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재소자를 위해 법무부에서 발간한 잡지 『새길』의 창간부터 속간까지 초기 발간 시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재소자 잡지가 교도소 내에서 필요했던 이유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휴간되었던 상황,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속간호를 내고 혼란했던 잡지 발간 체제를 거쳐 안정화되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근·현대 감옥문학 매체의 특성과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월간 『새길』 창간호의 특성과 시대적 의미

『새길』이 창간된 1948년 4월 당시 한반도의 분위기는 미·소군정 하에서 점차 남과 북이 분리되어 각각의 체제를 유지한다는 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던 시점이었다. 남과 북은 당시 미·소군정의 실질적인 통제하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뉜 채 남북 정치세력이 각각 통치 권력의 힘을 키워가면서 분단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잡지 『새길』이 발간되기 1년여 앞선 1947년 7월에 해방공간의 대표적 중도

정치인이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면서 완충지대가 사라진 우파와 좌파의 대립은 더욱 격심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남쪽에서는 점차 좌파 세력들이 힘을 잃어가면서 남북 공동정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은 동력을 잃어갔다. 1948년은 미군정 하에서 제주 4.3이 시작되었던 시점이었고, 공동정부 수립에 대한 남북의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점차 가시화되던 시기였다. 김구 선생은 1948년 4월 통일 정부 구성을 위해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했으나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했고, 결국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구성을 위해 5·10선거가 남한 지역에서만 진행되었다.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곧이어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8월 15일 대한민국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결국 남과 북은 갈라서게 되었다. 이후 남북한은 각자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남북, 좌익·우익, 진보·보수의 이념 대립 구도를 우리 사회에 고착화시켰으며, 이로 인해 남한에서는 좌익 세력 척결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다. 1948년 10월 여수·순천의 14연대의 여순 사건이 발생하고 1949년에는 국민보도연맹이 결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좌익 인사 테러가 곳곳에서 일어나면서 남한에서 좌파 세력은 점차 제거되었다.

이와 같이 매우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치형협회는 수행자들을 위해 교도소에 배포할 월간 『새길』의 창간호를 1948년 4월 발행하였다. 당시 용지(用紙)난이 극심했고 원고 청탁이나 인쇄소 섭외가 쉽지 않았던 잡지 발간의 외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교정국에서 『새길』을 창간하는 데 확고한 목적하에 많은 노력을 쏟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체 발간을 서둘렀던 이유는 무엇인지 『새길』의 창간 목적을 살펴으로써 매체의 특성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새길』 창간 당시 법무부의 매체 발간 상황과 문제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길』 발간 이전에 법무부에서 발간해서 교도소에 보급했던 『광명(光明)』⁸⁾이라는 신문이 존재했다. 『광명』은 당시 법무부에서 발

8) 현재까지 『광명』의 매체 원본은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한일보사 사장인 이

행하던 기관지 역할을 했던 매체로 교도소 내 소식지 역할도 겸했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이후 예산, 용지 공급, 인쇄소 확보 등 여러 문제들이 겹친 상황에서 법무부에서는 수형자들의 정보 습득, 교양 함양을 위해서 따로 매체를 발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다. 또한 기관지의 특성 상 권력이나 정권의 유지, 홍보 수단이었기 때문에 수형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렇듯 『광명』은 재소자에게 영향을 미칠 어떤 목적을 의도해서 교도소에 비치되었다기보다는 법무부 기관지였기 때문에 산하 기관에 배포가 되었고 그것을 일부 수형자들이 읽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당시 교도관, 수형자 모두 접할 수 있는 매체 또는 인쇄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⁹⁾ 『광명』은 교도소 내에서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광명』은 수형자들의 요구나 필요를 반영한 매체가 아니었다. 당시 남북에 미·소 군정이 진주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 역시 좌우익의 대립으로 혼란한 상황이었으므로 국민들은 당대 정치 상황과 이념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수형자들 역시 교도소 외부 사회의 소식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단절된 세계에서 외부의 정보를 얻고자

종영의 창간 측사에서 “『광명』신문이 『새길』이라는 잡지로 이름을 고치면서”라고 언급한 부분과 기관지 『광명』을 언급한 『경향신문』 기사를 통해 판단할 때 당시 교도소 내부에 제공되었던 법무부 발행 매체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법무부 산하에 존재했던 치형협회가 『치형』이라는 매체를 발간한 것을 고려할 때 『광명』 역시 비슷한 성격을 지닌 매체로 추측된다. 이종영, 「‘물’과 ‘소금’이 되기를」, 『새길』, 창간호, 3쪽; 「지방형무소시찰기 상(上)」, 『경향신문』, 1947.5.20, 2면.

9) 「옥중에 만세소동」, 『경향신문』, 1947.5.1, 3면. 이 기사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교도소 내 열악한 환경에 소동을 일으켰다. 수감자들은 급식 개선, 신문 구독 등 주요 요구 사항을 제시했지만 교도소장은 현실적인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신문 구독 불가 이유가 교도소 내 형무소 기관지인 『광명』이 배포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교도소 내 외부 매체나 출판물이 유입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하는 욕망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명』은 법무부의 기관지였기 때문에 재소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재소자들은 교도소 내 다른 언론 매체(신문)의 보급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와 함께 식량 보급, 시설 개선 등 매우 열악한 교도소 환경의 개선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형자들은 집단행동을 도모해서 교도소 내 소요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즉, 해방 이후 미군정이 남한 지역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부정부패, 친일 세력 척결 실패 등으로 민중들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더욱 열악한 상황에 놓인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들이 탈옥하거나 폭동을 일으키는 등 집단행동이 이어졌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재소자들의 저항은 정권 유지나 사회 안정에 큰 위협이었다. 조기에 재소자들의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폭동이나 반정부 시위로 확대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재소자들이 당시 좌익 세력이나 남로당 등과 결합하게 되면 더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형정국에서 재소자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화면서 미군정이 대한민국 정부로 권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단독정부는 권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생겼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교도소에 투옥된 독립 투사와 관련인들이 해방 이후 풀려나고 새로운 수형자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미래를 살아 가게 될 존재들이었다. 일제강점기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은 대부분 일제의 통치에 반하거나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까다로운 조선인 수형자들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이들에게 교도소 내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교도소 외부의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꺼렸다. 하지만 법무부 형정국은 조선총독부와 다른 관점에서 자국 국민인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행형(行刑)을 펼쳐야 했다. 즉,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이념적, 정치적 문제로 적대적 관계에 놓일 수 있는 국민을 최소화하여 국가를 안정

시켜야 했다. 해방 이후 수형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다시 사회로 복귀하여 사회 일원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 행형을 펼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사회 복귀와 적응은 행정국 행형 정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새길』 창간호의 창간사와 축사에도 이런 당시 상황과 법무부의 행형 정책에 대한 지향점이 잘 드러난다. 『새길』의 주필은 「창간사」에서 시급한 창간 이유와 타당성이 간략하게 제시했다. “해방 후 우리 사회에는 급작스레 범죄 사실이 늘어 갔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에 부끄러운 기현상이면서 우리 생활의 이면(裏面) 상을 여실히 말하는 것”¹⁰⁾이라고 밝히고 있다. 해방되면서 일제강점기 고통받던 민중들의 삶이 나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권력은 좌우 대립 속에 이념 갈등뿐만 아니라 실업률과 물가가 상승하면서 대구 10월 항쟁과 같은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간 법무부가 유지했던 교도소 내 폐쇄적 정책을 개선하여 재소자들의 “정신적 양식에 보탬”¹¹⁾이 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새길』을 창간하여 재소자들이 “지난날의 그릇됨을 완전히 참회하고 참된 국민의 한 사람으로 국민의 의무”¹²⁾를 다할 수 있도록 행형(行刑)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한민보사 사장인 설의식의 창간 축사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있다. “엄벌주의에서 선도주의 교화주의로 행형의 목적과 수단이 변질되어 가고 또 그리되기를 요청하는 것도 당연”¹³⁾하다고 언급하면서 본격적으로 행정 정책과 제도가 ‘교화’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역설했다. 사실 행정국의 체계와 행형의 목적, 방식, 인력 등은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총독부의 것을 답습해 왔다. 즉, 행정국에서는 재소자의 교화보다는

10) 주필, 『새길』 창간호, 사법부 형정국, 1948.4, 1쪽.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인용문은 가독성을 위해서 가급적 현재 표기 방식을 따르고자 한다.

11) 위의 책, 같은 면.

12) 위의 책, 같은 면.

13) 설의식, 「정신적 위안을」, 『새길』 창간호, 사법부 형정국, 1948.4, 2쪽.

교도소 내 질서 유지와 재소자 관리, 통제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특히 이 시기 교도관(형무관)들의 고압적, 폭력적 태도가 여전히 문제가 되었다.

지난 10월 군정청 앞 데모 사건에 관련되어 군정 재판으로 6개월 징역 판결을 받은 서울대학 의학부 이진중 강사는 그간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복역 중이었는데 지난 1일 동 형무소 간수 유광만이 사소한 감정으로 무수히 구타하여 머리에 파열상을 입히는 등 아모리 형무관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용서치 못할 만행을 가하였으므로(……)

위의 인용문에서와 같은 사건이 당시 형무소에서 비일비재했던 상황이었다. 해방 이후 미군정 하에서 군정법 위반자도 있지만 절도, 사기, 강도 등 생활고 등으로 인한 범죄자가 대다수를 차지¹⁴⁾했고 범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형무소 내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래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형무관(지금의 교도관) 채용이 절실히 필요했으며 이에 따라 형무관학교에서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지속적으로 형무관 모집 광고를 내고 장단기 교육을 통해 형무관을 배출, 현장에 배치했다. 하지만 형무관 모집과 양성이 충분한 관리 하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급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무소 내외의 혼란한 상황과 형무관의 자질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월간 『새길』은 행형의 목적이 통제와 처벌에서 교화로 변화하기 위한 변곡점에 위치해 있었다. 일제강점기를 벗어나면서 교도소가 더 이상 독립 투사나 사회운동가들을 가두고 억압하고 통제하는 장소성의 표상을 탈피하고 본연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설의식은 그런 점

14) 「초만원 이룬 광주형무소」, 『조선일보』, 1947년9월11일, 2면. 광주형무소에서는 팔월 말일 현재 약 천 명의 죄수가 기복역 중이라 한다. 이중 절도, 사기범이 8할이고 포고령 위반, 살인, 강도, 상해죄, 기타가 2할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즉,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대였지만 이 시기까지는 정치범보다는 생계형 범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형정 기관의 행형 역시 새로운 시선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에서 형정이 “선도나 교화의 핵심”으로서 작동하여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을 느끼도록 위안될 자료를 제공”¹⁵⁾하는 기관으로서 존재하기를 주문한다. 소설가이자 기독교 잡지 『새사람』의 주간인 전영택 역시 축사에서 “길을 잘못 들었던 인간들이 옥중에 있는 기회에 『새길』로 들어가 새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이처럼 『새길』의 창간을 대하는 여러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시선은 재소자의 교화와 개선이다.

그래서 『새길』은 재소자들의 불만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도모하였다.

먼저 창간호의 목차, 글의 내용, 간기 등 체계를 살펴보면 매체 특성이 잘 드러난다. 창간호 목차 구성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뉜다. 창간사와 축사, 재소자들을 위한 에세이 및 칼럼, 재소자의 글·편지·참회록 등, 교양(문학, 역사, 철학, 문화), 편집후기와 간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쪽지	글 제목	필자	쪽	비고
표지그림		청공		
창간사		주필	1	
축사		조성환	2	형정
	정신적 위안을	새한민보사 설의식	2	언론인
	‘물’과 ‘소금’이 되기를	대한일보사장 이종영	3	언론인
	『새길』 창간을 축하하여	『새사람』 주간 전영택	4	소설가
	진실한 삶의 지표가 되기를	경성형무소장 김병완	4	형정
	옥에게신 여러분께	장백산인(長白山人)	5	소설가
	회심과 희망	전영택	6	소설가
	선장의 최후의 S·O·S	『시조』 편집인 왕대아 여사	10	선교사
	심은대로 나타난다	청주형무소 교무과장 광경한	10	형정
	불존과 인간생활	전운동	11	
	새사람	이계원(선)	13	

15) 설의식, 앞의 책, 같은 면.

『새길』 창간호 목차				
쪽지	글 제목	필자	쪽	비고
후생(厚生) 수필	철학의 발전과 통속철학의 보급	철학박사 김형익	15	학자
수양원	일에 흥미를 가지자	도원	17	
독자의 소리	나의 고백(마포형무소)	김용한	18	재소자
	지난날의 나의 과오(마포형무소)	최종재	19	재소자
전설	조선 귀의 시조	S. S 生	20	
시	참회	유엽	22	시인
실화	현우옹녀사복수기	송학당인	23	
	유관순양의 최후	김수환	26	
	편집후기		30	

먼저 목차에서 필자와 형식에 주목해서 살펴볼 부분은 창간호 대부분의 지면을 재소자 교화를 위한 수필, 칼럼과 교양 함양을 위한 문학, 철학, 고전, 사회 영역의 글을 다수 수록했다는 점이다. 또 재소자의 글은 <독자의 소리> 코너에 2편 밖에 실리지 않았지만 작가, 언론인, 사회활동가의 글이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방공간에서 교도소 내 가장 큰 문제는 재소자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탈옥 등 사건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재소자들 입장에서는 물자 및 식량 공급 부족, 시설 열악, 재소자 과밀화 등 여러 문제에 대한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새길』 창간의 목적은 재소자들의 안정이 우선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물자의 공급이나 시설 개선 등의 문제는 당시 상황으로는 예산 문제나 정치적인 이유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를 타개할 방법으로 행정국에서는 재소자 의식 개선을 선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정국의 잡지 발행 기조는 창간호에 수록된 여러 글에서 동시에 나타난다. 예를 들면 「옥에 계신 여러분께」라는 글의 필자인 이광수(장백산인이 이광수의 필명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은 자신의 과거 옥중 체험을 바탕으로 재소자들이 현재 감옥생활에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호소하고 있다. “사람의 마음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것은 감옥에 있을 때”¹⁶⁾이므로 감옥생활은 일상의 가장 큰 불행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계원(선)¹⁷⁾의 「새사람」이라는 글에서는 “같은 사람인데, 나는 어찌하여 인간의 낙오자로서 인간 사회에 기생충 노릇을 하고 있는가?”¹⁸⁾라고 강력한 충격요법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다.

재소자의 의식 개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여러 글이 수록되어 상황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또 하나 필요한 요소가 있다. 바로 필자의 문체이자 잡지의 편집 통일성이다. 창간호에 수록된 글 중에서 축사와 수양록, 독자의 소리, 편집후기를 제외한 나머지 글은 한글을 주축으로 해서 한자를 병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다. 특히 소설가 전영택의 「희심과 희망」은 유일하게 순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 방식 역시 재소자들이 『새길』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가급적 한글 사용 전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문맹률을 고려할 때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 역시 대다수 기초독서 능력조차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글 사용이나 한자 병기를 통해 보다 많은 재소자들이 읽거나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축사와 재소자의 글 두 편은 오히려 한글-한자 병기가 아닌 한자를 그대로 쓰고 있는 점이다. 축사는 당대 지식인이나 지배계층에서 여전히 한자 사용이 글쓰기의 규범이자 필자의 학식과 권위를 드러낸다는 인식에서 한자 사용을 지향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독자인 재소자들이 형식적인 축사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매체 편집 과정에서도 편집 방향과는 달랐지만 한글-한자 병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재소자의 글 2편은 앞선 축사만큼이나 한자 표기가 두드러진다. 물론 재소자라고 해서

16) 장백산인, 「옥에 계신 여러분께」, 『새길』 창간호, 1948, 5쪽.

17) 목차와 본문에서 필자의 이름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다. 목차에서는 이계원(李啓元)으로 되어 있고, 본문에서는 이계선(李啓先)으로 표기되어 있다.

18) 이계원(선), 「새사람」, 『새길』 창간호, 1948.4, 14쪽.

한자를 모르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두 명의 필자는 한자를 읽고 쓰는 데 익숙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 무엇보다 잡지의 편집 방향에 따라 수정하지 않고 재소자의 글 두 편 모두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잡지의 통일성에는 벗어나지만 재소자의 학식과 필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동료 재소자나 교도관들에게 재소자의 능력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창간호에 수록된 글을 내용 면에서 살펴보면 이념 지향의 내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특징적이다. 당시 좌우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단독정부 수립 움직임까지 가시화되는 상황은 극단적 좌우의 대립의 긴장이 끊임없이 양산되었다. 그런데 새길은 이러한 이념 지향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느 정도 균형적 논조를 유지하고자 했다. 창간호 측사에 대한일보 사장 이종영과 새한민보 사장 설의식이 언론인으로 참여했다. 『대한일보』는 해방공간에서 극우 매체로 분류되었던 신문이며 사장 이종영은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알려진 인물로 해방 이후 적극적 반공 세력으로 변모하였다. 반면 『새한민보』는 중도지를 지향하는 신문으로 언론인으로 평생 살아온 설의식이 만든 신문이다.¹⁹⁾ 이처럼 좌익 매체는 배제되었지만 우파와 중도 매체를 이끈 두 필자의 측사가 함께 수록되었던 것 또한 『새길』의 매체 특성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재소자 중에는 우파와 좌파, 중도 계층 등 다양한 정치적 지향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매체에서 한쪽의 시선만 노골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잡지 발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재소자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생각해 보면 창간호에는 좌익과 관련된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좌익에 대한 거부나 외면 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간접적, 우회적 정치의식 표출은 당시 남한에서 발행되던 우파나 중도 지

19)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347쪽.

향 매체들이 취했던 전략과 비슷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새길』 창간호는 법무부 교정국에서 매체 발간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실천으로 옮긴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당시 재소자들을 안정시키고 교도소 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방공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대립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고 오롯이 행형의 관점에서 매체 전략을 구사한 산물임을 확인했다. 이러한 전략은 재소자의 관점에서 매체를 접했을 때 거부감을 줄이고 재소자들 사이에 사상적 갈등도 표면화하지 않는 필자 선정, 글의 청탁 등과 맞닿아 있다. 이후 한국전쟁이 시작되면서 『새길』은 지속적으로 발간되지 못한다. 1953년 속간호가 나오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속간호는 창간호와 유사하지만 변화한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또 다른 목적에 따른 전략을 취하고 있다.

3. 월간 『새길』 속간호의 특성과 시대적 의미

월간 『새길』은 1948년 4월 창간호가 발간된 후 매달 지속적으로 발간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혼란한 사회 상황과 남북 대립 속에서 한국전쟁의 싹이 트는 긴박한 현실로 인해 법무부 행정국에서 잡지 발간에 신경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정간된 지 3년”²⁰⁾ 만에 1953년 5월 속간호 표지에 “속간 5월호(제4호)”로 표기되어 속간호가 발행되었다. 즉, 창간호가 발행되고 난 후 약 2년 사이에 2호, 3호²¹⁾가 발간되었을 뿐 한국전쟁기 대부분 기간 정간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간의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전쟁기 용지난, 전선 이동에 따른 교도소 폐쇄,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 등의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

20) 「편집후기」, 『새길』 속간 5월호(제4호), 1953.5, 40쪽.

21) 현재 『새길』 2호, 3호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차후 자료 발굴을 통해서 창간호부터 속간호 사이에 시기 동안 발간된 매체를 확보하여 정간 당시 발행 상황과 매체 특성을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용했다. 용지난은 이 시기 전국적으로 모든 기관과 인쇄소에서도 겪었던 문제였다. 그 이유는 종이의 원료가 되는 펄프의 수입이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매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방기에 발간된 도서와 잡지의 경우 재생지를 사용하거나 종이 지질이 매우 떨어지는 용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마저도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방 이후 지속적으로 인쇄용지 부족 현상에 시달렸다. 『새길』 역시 용지 확보가 어려움을 창간호 편집후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용지난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잡지를 발간했던 것은 법무부 교정국에서 『새길』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발간하고자 했던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전쟁으로 인한 교도소 폐쇄와 인쇄소 확보의 어려움은 당시 서로 연동된 문제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한국전쟁기를 거치면서 법무부에서 필요한 매체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교도소 내에서 용지 생산과 인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마포구 공덕동 105번지에 위치한 마포형무소는 일제강점기 초기부터 운영되면서 일제의 법무부 정책과 관련 자료를 인쇄해 왔던 곳이다. 일제강점기에 법무부 교정국 내 사단법인 치형협회에서 잡지 『치형』을 비롯하여 법무부 관련 다양한 도서를 발간했으며, 대부분 인쇄물은 마포형무소 내 인쇄소에서 발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출판이 어려운 사회적 여건 속에서도 법무부에서 다양한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포형무소 내에 일제강점기부터 종이를 생산한 제지공장과 인쇄를 할 수 있는 인쇄소가 존재했기 때문이다.²²⁾ 이처럼 일제는 총독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형무소 내에 재소자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제지공장과 인쇄공장 등을 운영했으며 사단법인 치형협회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놓았다.

해방 이후에도 이와 같은 설비가 그대로 존재했었기 때문에 마포교도소를 중심으로 법무부, 교정국에서 자료와 매체를 발간할 수 있었다. 당

22) 『치형』 15권 6호, 치형협회, 1937.

시 마포형무소는 제지, 도자기, 목공, 인쇄, 피복, 철공 등 재소자들이 사회에 복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는 작업장이 존재했으며, 재소자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물품을 제작,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런데 『새길』의 경우 속간호 간기에 매체를 인쇄한 인쇄소가 마포형무소로 표기가 되었지만 『형정』은 1955년 8월(21호)부터 간기에 ‘인쇄소 마포형무소’가 표기되어 나타난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 이후 마포형무소 내 기존 장비와 인력이 손실되어 복구에 시일이 걸렸기 때문에 이전처럼 마포형무소만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종이를 구하고 인쇄를 거쳤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기 전선이 대구까지 밀리면서 전국적으로 각 지역 형무소 시설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한군에 점령당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500명이 넘는 형무소 직원이 피살 또는 행방불명되었고, 완전히 전소한 형무소를 비롯해 건물과 설비가 50% 이상 파괴되었다.²³⁾ 마포형무소 역시 이러한 피해를 비껴갈 수 없었다. 전쟁 당시 여러 차례 전선이 움직이면서 서울 역시 피해가 컸지만 1951년 3월이 지나면서부터 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고 전쟁 중에도 재건 활동이 시작된다. 그래서 마포형무소 등 전국 형무소는 서울 수복 이후 시설 등 복구작업이 진행되면서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특이할 점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형정』에서 인쇄소가 표기된 것은 1955년 8월호부터이다. 하지만 『형정』 1953년 2·3월 합본호(통권 3호) 흥산지업사(대표 김교익)의 축발전 광고²⁴⁾가 실린다. 이 광고에 흥산지업사 공장 주소가 ‘마포형무소제지공장’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전쟁 중 피해 복구가 진행되면서 늦어도 『형정』이 창간된 1952년 12월부터 1953년 3월 사이에는 마포교도소 내에서 제지 및 인쇄작업이 가능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법무부 교정국 형무소 내의 자체 제지

23) 「자유제전에 바친 법무경찰 우리의 희생」, 『동아일보』, 1953년6월16일, 2면.

24) 『형정』 3호, 치형협회, 1953.3.

공장, 인쇄소였던 과거와 달리 당시 사정으로 민간에도 개방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 1951년 12월 30일자 『조선일보』에 서울 재수복 후 1952년 1월 중에 마포형무소 내 제지공장을 운영²⁵⁾하게 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이후에도 전쟁 상황과 원료 수급 등의 문제로 원활하게 제지 생산이 이루어지지지는 않았지만 1952년부터는 제지 생산 설비 운영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듯 매체 발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종이 확보가 가능해지자마자 법무부 교정국에서는 신속하게 『형정』, 『새길』이 연이어 발간을 계획하고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제지와 인쇄시설 구비가 중요한 이유는 기관에서 매체 발간의 계획, 실행, 인쇄, 배포까지 모두 주관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체 생산의 전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기관의 매체 발간 목적, 의도, 방법 등에 대해 외부의 간섭을 어느 정도 배제하고 기관이 목적인 바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새길』 창간부터 속간 전후의 발행 상황은 아래와 같다.

표지 권호 표기	발행일	실제 권호	비고
(제1권·제1호)	4281년 4월 1일	창간호	
제1권 2호	4281년-4283년	2호	추정, 자료 미확보
제1권 3호	4281년-4283년	3호	추정, 자료 미확보
속간 5월호(제4호)	4286년 5월 29일	4호	
6월호(제5호)	4286년 7월 10일	5호	
7월호(제2호)	4286년 7월 23일	6호	권호 표기 확정
8·9월호(제3호)	4286년 9월 5일	7호	
(10월호 제4호)	4286년 10월 5일	8호	
(11월호 제5호)	4286년 11월 5일	9호	
성탄특별호(제6호)	4286년 12월 5일	10호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속간호에 권호가 ‘4호’로 표기된 점을 볼 때 1948년 창간 이후 2-3호가 발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표에서 같이 권호 표기가 속간 5월호는 제4호, 6월호는 제5호로 권호 표기

25) 『마포형무소 제지 내월 초부터는 등장』, 『조선일보』, 1951년 12월 30일, 2면.

가 정상적으로 기재되다가 1953년 7월호부터 갑자기 제2호로 권호가 표기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7월호에서 권호가 표기가 오기인 것인지, 아니면 의도한 바가 있었는지 확인은 어렵지만 이러한 권호의 혼란은 당시 매체 발간 환경이 매우 혼란스럽고 급박하게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월호와 7월호는 속간호에는 없었던 “단기 4286년 7월 6일 허가”라는 문구가 간기에 포함되어 있고 발행일 역시 1953년 7월 10일과 23일로 2주 정도 간격으로 거의 동시에 발간되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당시 이승만 정권 하에서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이에 따라 계엄법 13조에 언론 출판 허가제가 강화되면서 신문, 정기간행물 등이 재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새길』 역시 허가를 기다리는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6월호의 발간이 늦어지면서 매체 발간 허가가 난 후 『새길』 편집부는 6월호와 7월호를 거의 동시에 편집 발간하게 된 상황이었다. 즉, 출판물 등록과 관련해서 창간호부터 3호까지는 해방 이후 1947년 9월 30일 출판물 등록번호를 사용하다가 속간 이후 1953년 7월에 새로 출판물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7월호를 제2호로 표기한 것은 속간호가 나오고 6월호가 출판 허가제에 따라 발간 시기를 못 맞출 것을 고려하여 속간호 1호, 7월호 2호로 권호 번호를 재부여 하여 발간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면에 『형정』은 이 시기 이러한 출판물 등록과 관련하여 부침이 전혀 없었다. 그 이유는 형정의 경우 민간인에 배포되기보다는 행정국 직원, 형무소 직원과, 형무관학교에 주로 배포되었던 매체였기 때문에 민간인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 『새길』과는 잡지 관리 측면에서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법무부 교정국이 매체 발간을 추진한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당시 교정국을 중심으로 하는 형무소와 형무관(교도관), 재소자 관리, 감독 체계가 불안정했다는 것의 방증이다. 즉, 매체를 활용해야 할 만한 이유와 매체가 효과적인 도구로서 사용될 상

황이 발생했던 것이다. 참고로 『형정』의 경우에는 필자가 예비 교도관 양성을 위한 지침서, 현직 교도과 재교육 도구로서의 역할을 다른 지면²⁶⁾을 통해 밝힌 바가 있다.

『새길』의 속간 발행 목적은 『형정』과는 다른 길을 지닌다. 또 『새길』 창간호와도 다른 길을 걸어갔다. 『새길』 매체의 대상 독자가 재소자임은 당연한 이유이고 시대적인 변화와 법무부 교정국의 시각 변화와 가치 지향의 변화도 포착된다. 이 글에서는 새길 속간호를 중심으로 발간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새길 속간호의 구성은 크게 치사, 재소자 교양 코너(종교, 시사, 수양), 직원 문예, 재소자 문예(수필, 시, 콩트), 편집부 코너, 편집후기와 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창간호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재소자들의 글이 전체 분량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명실상부하게 재소자를 위한, 재소자 중심의 잡지를 지향하는 바가 잘 드러나는 편집 의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전문 문사(문인)의 글이 거의 없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다. 그 이유는 새길 속간호가 나올 당시는 한국 전쟁으로 남북이 휴전하기 이전 시기였기 때문에 피란 문단의 작가들을 섭외하기 어려웠던 상황과 원고료 지급 등 발간비용의 문제, 잡지 발간의 시기적 촉박함²⁷⁾ 역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새길』 속간호 목차는 다음과 같다.

쪽지	글 제목	필자	쪽수	비고
표지그림				
목차				
치사(致辭)	「새길」의 사명	법무부장관 서상환	1	직원
	희망의 「새길」	법무부차관 정재환	2	직원
권두언	생활의 성실	형정국장 신언한	3	직원

26) 오현석,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교도관 형성을 위한 월간 『형정』의 매체 전략」, 『한국문학논총』 99, 한국문학회, 2025, 175-200쪽.

27) 「편집후기」, 『새길』 속간호, 법무부 형정국, 1953.5, 40쪽.

쪽지	글 제목	필자	쪽수	비고
재소자에게 보내는 말	우리의 도덕은 귀한 것이다.	교회보건과장 김창덕	5	직원
	인생길	자재과장 정섭	7	직원
종교정좌	기독교의 기본지식	교회보건과장 김창덕	10	직원
시사해설	소련의 평화공세	형정국법무관 이원항	11	직원
수양*화	이상	형정국사무관 김세종	14	직원
특집실화	노파의 면회	형정국사무관 이원호	15	직원
	메모	편집실	17	
야담	소년임경업장군	대구형무소 나대홍	18	직원
연재소설	빨치산(제1회)	형정국 이영갑	19	직원
수필	제1회재소자작품전시회 1등당선작 독서	마산형무소 김규립	25	재소자
	제1회재소자작품전시회 가작 파기된 성서	대전형무소 김기찬	26	재소자
특집	원수의 손에서 사라온 나	인천소년형무소 이홍범	28	재소자
	정원명 승관상기	부산형무소 최종진	31	재소자
시	주님을 뵈옵	인천소년형무소 고세혁	35	재소자
	어머님 제1회재소자작품전시회1등작	대전형무소 서영	36	재소자
시극(詩劇)	멸공을 외치는 청년들	부산형무소 계수남	37	재소자
콩트	그리운 사랑	인천소년형무소 고계득	34	재소자
	지방소식	편집실	39	
	후기	편집실	40	
	좌우명	편집실	40	

우선 『새길』 속간호의 목차를 살펴보면 창간호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단어를 발견할 수 있다. ‘소련, 빨치산, 원수, 멸공’ 등 속간호가 발간될 당시 사회적 상황을 잘 드러내는 용어가 글의 제목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히 재소자의 글에 이와 같이 이념적 대립을 드러내는 용어

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길』 속간호의 발간 의도나 매체의 방향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매체에 수록된 글은 편집자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수록되며, 그 과정에서 편집자나 발간의 주체에 의해서 수정되기도 한다. 즉, 매체에 실린 글은 매체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 여부에 따라 수록, 변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새길』 창간호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았던 좌우 대립 구도가 속간호에서는 전면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전쟁이 만들어 낸 이념의 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창간호가 발행되었던 1948년 역시 극심한 좌우 대립으로 테러가 일어나고 반란, 저항 운동이 발생했던 시기였다. 그렇지만 『새길』 창간호에는 당대 사회의 이념 대립의 장면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외부 필자들의 면모도 우파, 중도우파 성향의 온건주의자들이 배치되었다. 하지만 속간호는 외부 필자는 거의 볼 수 없고 행정국 직원과 재소자만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 필자를 섭외할 여력이 많지 않았던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체 본래의 목적인 재소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여 재소자 필자의 원고를 많이 확보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비교적 글의 방향성이나 외부 필자가 줄어들면서 편집실에서는 원고의 방향성 관리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편집 상황을 바탕으로 목차의 배치와 제목 등이 결정된 결과물이 바로 속간호 목차이다.

구체적으로 『새길』 속간호의 발간 의도나 목적을 살펴보면 표면적 의도와 이면적 의도를 발견할 수 있다. 행정국장 신언한은 권두언에서 “수용생활을 운택하게 하고 인간 정서를 고취하고 새 지식을 배양하여 좁으로서 장차 사회인으로서의 갈 길을 계발”²⁸⁾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금 생각해 보면 당시의 ‘사회인’은 투철한 멸공 의식으로 무장한 사람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므로 『새길』 속간호에 수록되는 글 역시 이와 같은 큰 목표에 맞춰서 편집 및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8) 신언한, 「생활의 성실」, 『새길』 속간호, 법무부 행정국, 1953.5, 3쪽.

이를 고려할 때 이영갑의 「빨치산」은 매우 의미 있는 작품이다. 빨치산 관련 작품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빨치산을 다룬 소설을 전문 문사가 아닌 현직 교도관이 연재했다는 작품 외적 요소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 속간호에 1회차가 게재되기 시작해서 『새길』 9호까지 총 10회가 연재될 정도로 서사의 길이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은 국군이지만 위장을 통해 빨치산 부대에 잠입한 주인공이 빨치산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을 폭로하는 반공소설이다. 서사의 여러 장면에서 빨치산 부대가 인륜을 저버리고 목적에만 매몰되어서 비인간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제시한다. 이는 결국 독자들이 하여금 반공 의식을 형성하고 심리적 장벽을 확인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이 속간호는 재소자들의 지식 습득과 정보 공유와 함께 의식의 지향을 이해하고 당대 사회의 일관된 가치관을 확인하는 자리로서 기능함을 알 수 있다.²⁹⁾

「소련의 평화공세」, 「노파의 면회」는 재소자들의 대외적 정치, 사회 인식 형성과 재소자의 내적 심리를 자극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확고한 국가의식을 지니며 가족에 대한 애정을 그리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사회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을 담은 행정국 직원의 글이다.

소련의 금번 평화공세에 대하여 미국과 유엔당국이 심심한 경계와 심중한 생각으로 대처할 것을 믿음으로써 경경한 비판을 삼가거니와 과거에 자유진영이 너무나 여러번 기만을 당하였고 우리한국의 희생이 너무나 큰바 있었음으로 조국의 운명이 좌우될 중대기로에 직면한만치 유엔당국은 모름지기 한국전쟁종결에 있어서 후환을 가진 일시미봉책을 버리고 전한국민의 의사로써 적을 완전히 멸살하고 항구한 평화와 통일의 큰 길을 매진하여 주기를 기대하는바이다.³⁰⁾

그의 아들은 전란이 난후 간곤을 물은다는것이며 아이의 어머니되는 며느리는 부역행위로 공교롭게도 바로 방금 우리가 머물러있는 ○○형

29) 이영갑의 「빨치산」과 관련된 연구는 오현석, 「월간 『새길』 수록 연재소설 「빨치산」 연구」, 『한국문학논총』 98, 한국문학회, 2024, 171-200쪽을 참조할 것.

30) 이원항, 「소련의 평화공세」, 『새길』 속간호, 법무부 행정국, 1953.5, 14쪽.

무소에 한달전에 수용되었다는 것이며 여기까지와보니 노파는아이 어머니되는 그의 며느리를 한시바삐 면회하고 싶은 생각에 날이새도록 잠을 일으키지 못하였다.(……)나는 외 이노파를 맞났든가?하고 흘러 나리는 눈물을 남몰래 시켰다.”³¹⁾

위의 두 글은 서로 다른 전략으로 재소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당시 적이었던 쏘련의 태도를 기만적으로 보고 미국과 유엔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요청이 표현에 드러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재소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남한의 존립을 위해서 스스로 경계해야 함을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형정국 직원이 수감된 재소자와 그의 가족이 면회하는 장면에서 감정적 공감을 드러내는 글로 심리적 요소를 활용하여 재소자들의 감정을 고조시킨다. 특히 형무소에 수감된 며느리의 죄가 ‘부역행위’라는 점에서 사상적 문제를 지닌 이에 대해 형정국 직원의 포용성, 즉 국아의 포용성을 드러냄과 동시에 『새길』을 읽는 재소자들에게는 자신의 선택이 가족의 비극을 야기한 원인이 됨을 스스로 자각하도록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재소자의 글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거나 자신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관련된 글감을 선택해서 글을 수록했다. 이홍범의 「원수의 손에서 살아온 나」는 피난 중 인민군에 잡힌 상황에서 인민군인 소학교 동창의 선처로 살아남아 남한으로 올 수 있었던 과거를 회상하는 글이다. 현재 형무소에 수감되어 있지만 자신의 사상적 순결성을 증명하기 위해 글을 쓴 것이다. 게다가 주인공을 풀어준 인민군 친구의 배치되는 발화는 이 글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이군 힘차게 자유한국을 위해싸워주게 실은 군의 원수 여군으로부터
말은 자세히 들었다 (……)“애국애족의 진실한 토대 위에서 생사를 가

31) 이원호, 「노파의 면회」, 『새길』 속간호, 법무부 형정국, 1953.5, 16-17쪽.

리지 않고 싸우는 동지들은! 인민군!! 당기관! 기타! 사회단체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라”고 냉정하게 가장 존엄한 태도로서 말하였다!”³²⁾

위의 인용문에서는 필자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적군마저 사상적으로는 남한과 같은 입장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친구는 필자와 대화할 때 필자를 옹호하지만 인민군으로서 자신의 생존을 함께 고려하여 이윤배 반적인 표현을 씌와 동시에 친구에게 경계할 수 있도록 현실을 주지시키고 있다. 즉, 필자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겨 『새길』에 수록함으로써 자신이 적지에서 살아 돌아온 존재이며, 적군에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적군 중에도 우리의 사상과 가치를 지향하는 이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재 형무소에 수감된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고 출소 후 삶을 고려한 판단이 녹아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4. 나오며

본 논문에서는 1948년 4월 창간한 『새길』 창간호와 1953년 발간된 속간호를 중심으로 매체적 특성을 분석하고 잡지의 구성, 필진 등 변화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매체가 지향하는 가치관과 편집 의도 등을 파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새길』은 창간 당시부터 재소자를 위한 잡지로 만들어졌다. 해방 이후 형무소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재소자들의 불만과 이탈이 가중되어 가던 시기에 법무부 형정국에서는 이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방법을 고민했으며 그 대안으로 매체 발간을 선택했다. 당시 재소자들은 일제 강점 시기 꺾박받던 상황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염원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또한 재소자들의 수준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지

32) 이흥범, 「원수의 손에서 돌아온 나」, 『새길』 속간호, 법무부 형정국, 1953.5, 31쪽.

식인은 물론이고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이들까지 섞여 있는 형무소 내부는 규정 수용인원보다 초과하여 재소자들을 수용한 상황이었고 재소자들에게 제공되는 문화, 여가 활동은 거의 전무했다. 이에 재소자의 교화를 가장 큰 목적에 두고 『새길』이 창간, 형무소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교정국 입장에서는 당시 용지난과 인쇄시설 미비로 잡지를 창간하는 작업이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재소자들의 교양 함양과 기초지식 습득을 위한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창간호 구성 역시 재소자의 눈높이에 맞게 한글, 한글-한자 혼용, 한자 사용 등 글의 내용과 주제에 따라 취사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대한 조율을 잡지 편집실에서 해왔음을 목차와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해방 정국에서 법무부 교정국이 지향한 행형의 초점은 이념 확립보다는 재소자 교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새길』 속간호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창간호~3호 발간 이후 3년 간의 공백을 넘어서 1953년 5월에 속간호가 발간되었다. 그 사이에 한국전쟁의 소용돌이에 잡지 발간은 중단되었다. 전쟁을 겪으면서 모든 분야가 피해를 입었지만 특히 교정 영역은 교도관의 희생이 컸고, 전국 형무소 시설의 절반 이상이 전쟁으로 파손, 파괴되었다. 즉, 법무부 행정국 입장에서 한국전쟁은 집단의 근간을 흔든 문제였다.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해 각종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는 법무부에서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새길』 속간호를 냈다는 것은 잡지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큰 숨겨진 목적의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도가 속간호의 목차와 필진의 구성, 글과 작품의 세부 내용이다. 목차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소자의 의식 개선에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 재소자의 의식이라 함은 창간호에서 제기했던 재소자의 기초 사회생활 능력 향상과 문화예술 향유가 아니라 이념 대립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념 지향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주제와 글을 의미한다. 그래서 속간호의 필자는 전문 문사 대신에 대부분 행정국 직원, 지역 형무소

직원, 재소자로 구성이 되었다. 직원은 자신들의 지식 지향을 증명하기 좋은 수단이었으며 재소자 역시 의식의 투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이에 따라 속간호는 창간호와는 달리 이면에 배제된 의도와 선택된 의도가 극명하게 나뉘면서 발간되기 시작했다. 이후 1950년대 후반 사회가 점차 안정기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전문 문사의 글이 실리고, 주제 역시 재소자의 개인적 요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새길』 창간호, 법무부 행정국, 1948.4.
『새길』 속간호, 법무부 행정국, 1953.5.
『새길』 5호, 법무부 행정국, 1953.6.
『새길』 2호, 법무부 행정국, 1953.7.
『새길』 3호, 법무부 행정국, 1953.9.
『새길』 4호, 법무부 행정국, 1953.10.
『새길』 5호, 법무부 행정국, 1953.11.
『새길』 6호, 법무부 행정국, 1953.12.
『새길』 7호, 법무부 행정국, 1954.1.
『새길』 8호, 법무부 행정국, 1953.3.
『새길』 9호, 법무부 행정국, 1954.4.
『치형』 15권6호, 치형협회, 1937.6.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2. 단행본 및 논문

- 김동춘,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 돌베개, 2006.
김동춘 외, 『반공의 시대: 한국과 독일, 냉전의 정치』, 돌베개, 2015.
김득중·김영두, 『6·25전쟁과 냉전지식체계의 형성』, 국사편찬위원회, 2020.
김성리, 「냉전, 반공주의 질서와 한국의 전쟁정치」, 『경제와 사회』 89호, 2011, 333-366쪽.
김준현, 「1950년대 전향자-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제64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7-38쪽.

-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 신선영, 「죄와 벌의 시각화: 일제강점기 김윤보(1865~1938의 《형정도첩》을 중심으로)」, 『한국학』 45-3,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215-256쪽.
- 오현석, 「한국전쟁기 대한민국 교도관 형성을 위한 월간 『형정』의 매체 전략」, 『한국문학논총』 99, 2025, 175-200쪽.
- _____, 「월간 『새길』 수록 연재소설 「빨치산」 연구」, 『한국문학논총』 98, 한국문학회, 2024, 171-200쪽
- 윤덕영, 「해방 직후 신문자료 현황」, 『역사와 현실』 16, 한국역사연구회, 1995, 347쪽.
- 이봉범, 「귀순과 심리전, 1960년대 국가심리전 체계와 귀순의 냉전 정치성」, 『상허학보』 제59집, 상허학회, 2020, 11-80쪽.
- 이순욱, 『근대시의 전장』, 소명출판, 2014.
- 전갑생, 『한국전쟁과 분단 트라우마』, 선인, 2011.
- 조성훈, 「6·25전쟁이 남긴 포로문제」, 『한국전쟁학회-한국현대사의 재조명』, 명인문화사, 2007.
- 김성리,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 차민기, 「한국 근대 옥중시와 공간 인식」, 『현대문학이론연구』 11권,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375-394쪽.
- 최미진, 「반공포로의 석방과 국민형성의 딜레마 : 김광주의 석방인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1호,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1, 33-65쪽.
- 홍순권 외, 『전쟁과 국가폭력』, 선인,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Media Strategy of Monthly
『New Life』*, published by Korea Correctional
Service in Ministry of Justice
: the first issue and re-publishing issue

Oh, Hyoun-Su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focusing on the first issue of the 『New Life』 published in April 1948 and the second issue published in 1953, and to understand the values and editorial intentions of the media by examining the changes in the composition and writing of the magazine.

It has been made into a magazine for inmates since its inception. At the time when the complaints and deviations of the inmates were increasing in the harsh environment of the prison after liberation, the Ministry of Justice decided to solve various problems and chose to publish the media as an alternative. Therefore, with the greatest purpose of edification of the inmates, the 『New Life』 began to

* 『새길』의 영문 잡지명은 한글표기법대로 표기한다면 『Saegil』이 맞으나 잡지 원본에 영문 제호가 『New Life』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영문초록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영문 제호에 드러나듯 당시 법무부 형정국에서 『새길』을 발간하면서 의도한 것이 재소자들의 새로운 삶, 즉,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새길』에서 길항하고 있는 법무부 형정국의 발간 의도와 재소자들의 글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나가 고자 한다.

** Pusan National University.

spread to the prison.,Accordingly, the composition of the first issue is also selected according to the content and theme of the article, such as Hangeul, Hangeul-Hanja mixed use, and Chinese character use, in accordance with the inmate's eye level.,In this way, it can be seen that the focus of the execut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in the liberation government was on the correction of the inmates rather than the establishment of ideology.

On the other hand, 『New Life』 re-publishing issue showed a different aspect. The Korean War caused a great sacrifice of prison guards, and more than half of the prison facilities in the country were damaged and destroyed by war. The intention is the contents of the Inner Nursing, the composition of the writings, and the details of the writings and works. The table of contents covers a variety of issues, but it is practically meaningful to improve the consciousness of the inmates, so the writer of the nursing care is mostly composed of the staff of the prison, the local prison staff, and the inmates instead of the professional texts. The staff was a good way to demonstrate their knowledge orientation, and the inmates were also an opportunity to show their consciousness.

Key Words: prisoner, 『New Life』, First issue, re-publishing issue, media strategy, Ministry of Justice, political situation

■ 논문접수 : 2025년 7월 28일
■ 심사완료 : 2025년 8월 14일
■ 게재확정 : 2025년 8월 14일

